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0년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전월대비 0.5%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
 - － 전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어 0.5%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함(전월대비 +3.7%).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 운수·창고 등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전월대비 -1.1%).

◆ 2020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설비투자는 5.3%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8.2%)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17.2%), 화장품 등 비내구재(-0.6%)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전월대비 +0.2%).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13.8%)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3.7%)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함(전월대비 +0.9%).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2.5%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P	2019				2020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p	12월	11월p	12월p
생산	전산업	1.6	0.6	-0.8	-0.9	0.4	0.7	1.9	1.6	-3.4	-0.5	-1.1	3.9	-0.5(0.8)	-0.3(0.5)
	광공업	1.5	-0.1	0.4	-2.4	-0.3	0.3	2.2	5.1	-5.1	1.0	0.6	6.1	0.5(0.3)	3.4(3.7)
	제조업	1.3	0.1	0.5	-2.2	-0.6	0.5	2.4	5.5	-5.2	1.1	0.6	6.9	0.6(0.4)	3.4(3.7)
	건설업	-4.2	-6.9	-2.3	-10.2	-6.8	-8.2	-2.9	0.3	-4.1	-2.1	-3.0	0.8	1.7(4.5)	-2.5(-0.9)
	서비스업	2.3	1.4	-2.0	0.9	1.3	1.5	1.9	-1.1	-3.4	-1.7	-2.0	2.6	-1.4(0.7)	-2.2(-1.1)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6	2.0	2.2	3.4	-2.9	1.9	1.8	-1.3	4.5	-1.5(-0.9)	-2.0(0.2)
투자	설비투자	-3.6	-6.2	6.0	-18.7	-6.7	-1.9	3.7	7.0	6.3	7.8	3.5	11.1	5.4(3.5)	5.3(0.9)
물가		1.5	0.4	0.5	0.5	0.7	0.0	0.3	1.2	-0.1	0.6	0.4	1.5	0.5(0.2)	0.6(0.8)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3) 2019년 이후 전 산업 연간 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1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1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 대비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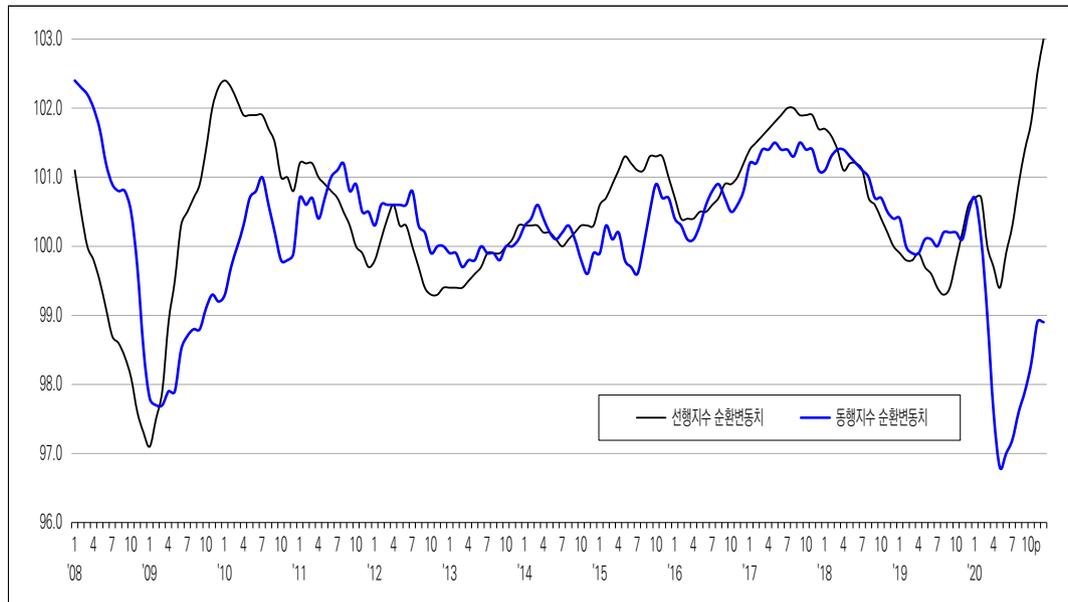
○ 2021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2015=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함(전월대비 0.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 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6.5%), 음식·숙박(0.9%), 기타 상품·서비스(2.0%), 보건(1.0%), 가정용품·가사서비스(1.2%), 의류·신발(0.7%), 주택·수도·전기·연료(0.2%), 주류·담배(0.1%)는 상승, 오락·문화(-0.8%), 통신(-1.3%), 교육(-2.9%), 교통(-2.9%)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하고, 식품 이외는 1.6%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함.

◆ 2020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증가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연구원)

고용 동향

◆ 취업자 크게 감소, 일시휴직자 역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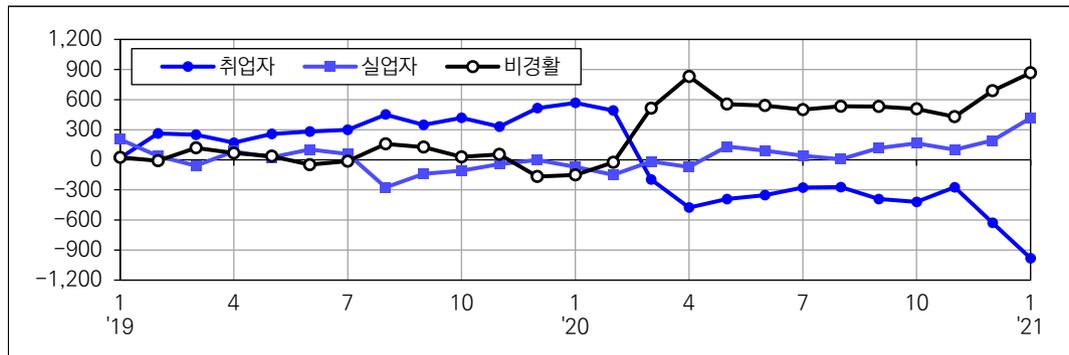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98만 2천 명 감소, 전월대비 27만 4천 명 감소함.

- 전월대비¹⁾ 일자리 증감폭(취업자 증가와 일시휴직자²⁾ 감소의 합)은 3월 -198만, 4월 -31만, 5월 +70만, 6월 +40만, 7월 +27만, 8월 +28만, 9월 -59만, 10월 +35만, 11월 +17만, 12월 -50만, 21년 1월은 -14만으로 일시휴직자의 감소에서 기인함.
- 제조업은 추세보다 취업자가 증가함. 피보험자도 증가 전환함.
- 산업별로 대면서비스업, 공공행정, 보건복지에서 감소함. 대면서비스 중 도·소매업은 20대 청년층에서 감소하고 음식·숙박은 40~50대에서 감소함. 공공행정, 보건복지는 60세 이상에서 감소함.
-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은 감소함. 상용직 증가는 제조업에서 나타났고 임시직은 공공행정, 보건복지에서 나타남.
- 일시휴직자는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에서 감소함.
- 실업자는 크게 증가함. 주로 70세 이상 전직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 나타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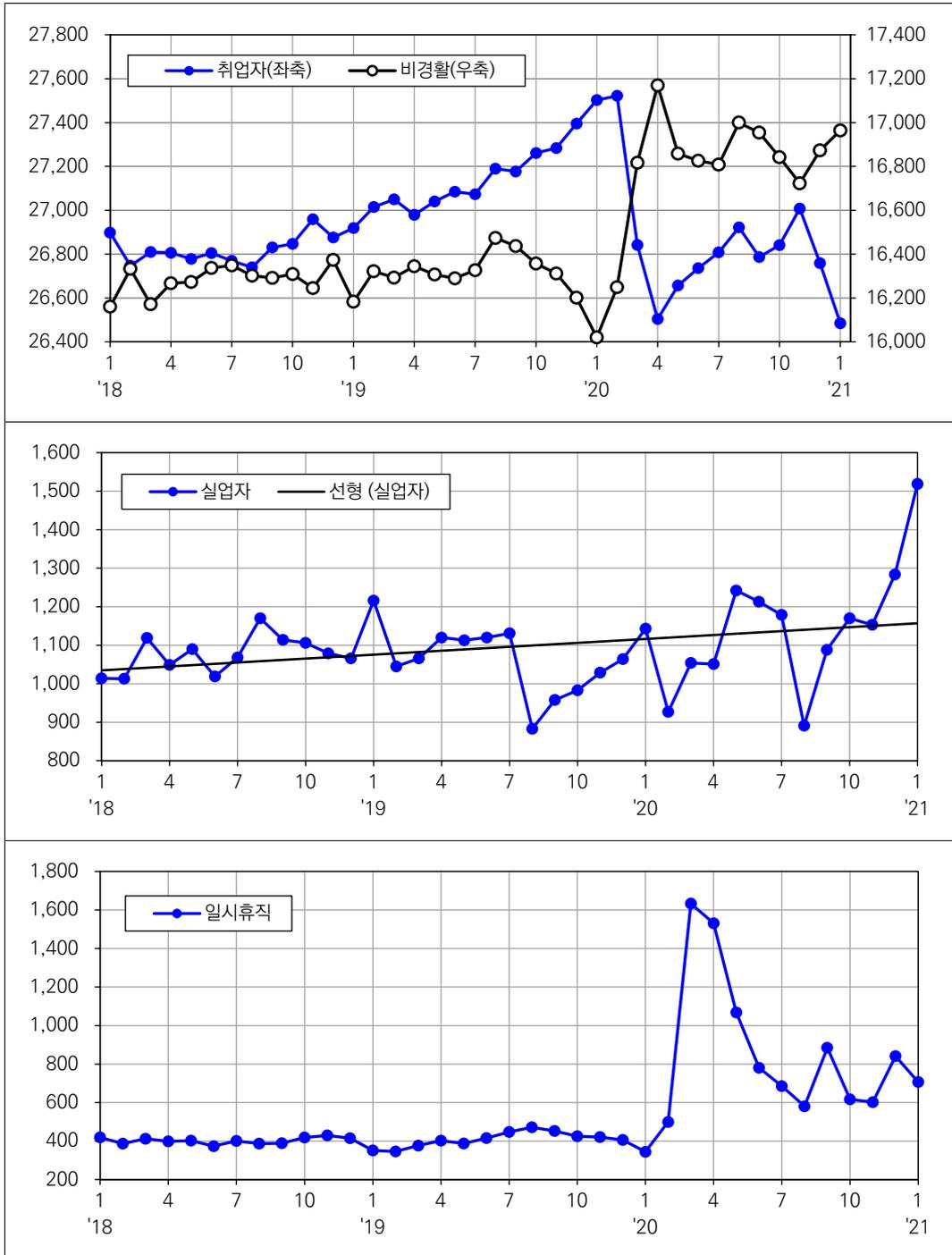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통계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을 기본으로 활용함. 통계청 계절조정계열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전월대비 통계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의 전월대비 차이로 계산함. 예를 들어 9월 제조업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9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에 8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을 뺀 값을 의미함.
 2) 일시휴직자 계절 조정 계열은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 2021년 1월은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함.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의 감소폭이 큼.
 - 청년층에서 실업자가 증가함. 3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고 비경황이 증가함.
 - 60세 이상은 취업자가 감소하고 비경황은 증가함.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됨(공공행정, 보건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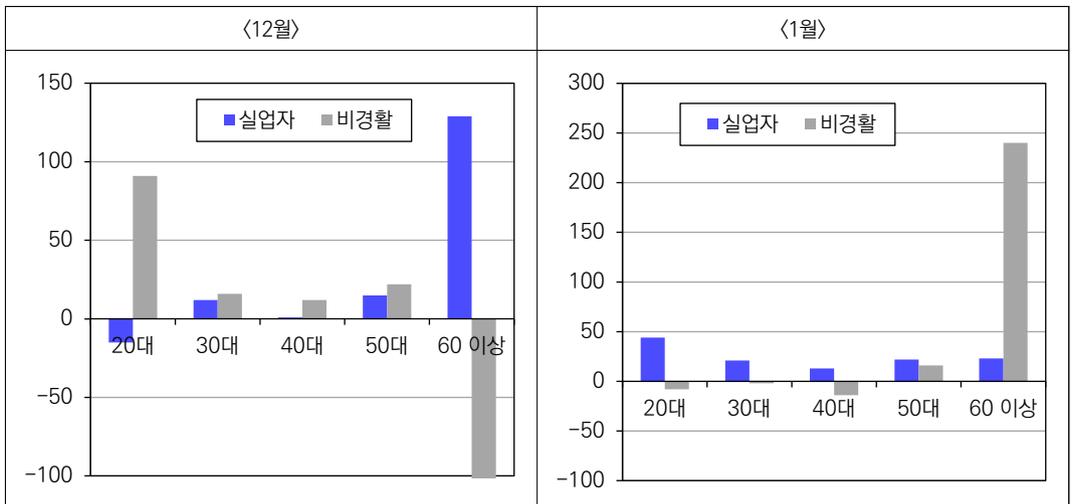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p,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1월	12월	1월	3개월	11월	12월	1월	3개월	11월	12월	1월	3개월
취업자	0	-7	-11	-4	12	-53	-14	-23	40	-37	-29	-53
실업자	0	-5	6	12	-3	-15	44	49	0	12	21	5
비경제활동인구	-12	-1	-5	-5	-2	75	-8	-4	-52	13	-2	51
실업률	-0.1	-2.2	4.0	6.8	-0.1	-0.2	1.1	1.3	-0.1	0.3	0.4	0.1
고용률	0.1	-0.3	-0.4	-0.1	0.1	-0.9	-0.4	-0.6	0.7	-0.4	-0.3	-0.8
	40대				50대				60세 이상			
	11월	12월	1월	3개월	11월	12월	1월	3개월	11월	12월	1월	3개월
취업자	15	-17	-5	10	15	-25	-39	-48	36	41	-208	-236
실업자	-12	1	13	-4	-1	15	22	1	-10	129	23	10
비경제활동인구	-9	10	-14	-6	-16	9	16	47	31	-114	240	224
실업률	-0.2	0.0	0.2	-0.1	0.0	0.2	0.4	0.1	-0.2	2.2	0.6	0.4
고용률	0.2	-0.1	0.0	0.1	0.2	-0.3	-0.5	-0.6	0.1	0.1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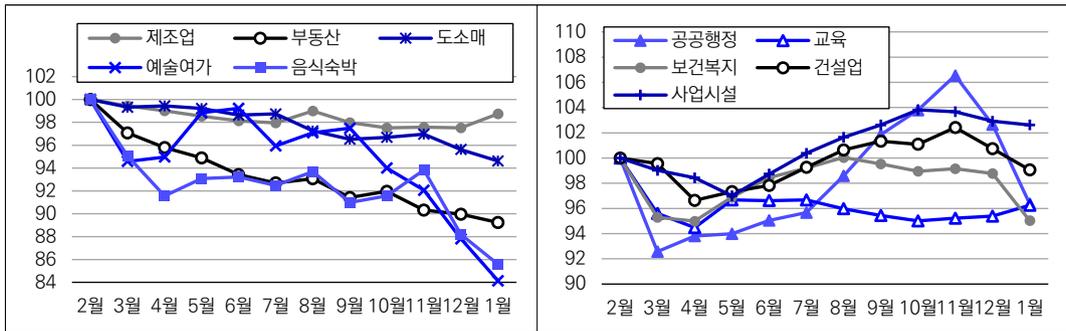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사업시설관리가 회복세인 반면, 도·소매, 교육서비스, 건설은 정체 상태임. 음식·숙박, 예술·여가, 부동산, 보건·복지 및 공공행정정은 감소세임.
- 보건·복지와 공공행정은 최근 3개월 동안 감소 추세임.

[그림 4]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2월을 100으로 정규화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9	59	-14	8	96	-5	99	6.9
광업	-2	-1	-1	2	0	0	2	18.2
제조업	-113	-110	-46	2	-2	54	54	1.2
전기·가스·증기	13	5	-3	2	-3	-2	-3	-4.0
수도·원료재생	21	18	16	7	1	-5	3	1.9
건설업	77	23	-20	27	-34	-34	-41	-2.0
도매 및 소매업	-166	-197	-218	10	-48	-36	-74	-2.1
운수 및 창고업	24	29	30	15	14	14	43	2.9
숙박 및 음식점업	-161	-313	-367	52	-129	-60	-137	-6.5
정보통신업	-19	-2	-14	11	14	-16	9	1.1
금융 및 보험업	-32	-21	16	-4	5	27	28	3.6
부동산업	-74	-66	-63	-9	-2	-4	-15	-3.0
전문·과학·기술	-9	12	-15	3	11	-17	-3	-0.3
사업시설관리지원	72	38	27	-2	-10	-4	-16	-1.2
공공행정·사회보장	152	91	20	31	-44	-71	-84	-7.2
교육서비스업	-107	-99	-75	4	3	16	23	1.3
보건 및 사회복지	114	44	-74	5	-9	-89	-93	-4.0
예술·스포츠·여가	-48	-77	-81	-10	-22	-19	-51	-10.5
협회·단체·수리·기타	-29	-69	-103	-1	-42	-28	-71	-6.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	6	2	-7	4	-7	-10	-9.5
국제 및 외국기관	2	3	1	1	1	-2	0	0.0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1월은 전월대비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함.

-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함.
- 임시직은 보건사회복지 및 공공행정에서 주로 감소함.
- 일용직은 건설업에서 감소함.
- 농림어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38	5	36	68	42	112	222	1.5
임시직	-162	-351	-563	98	-193	-304	-399	-8.8
일용직	-44	-170	-232	3	-136	-40	-173	-12.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15	-138	-158	12	-29	-13	-30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5	75	32	7	51	-32	26	0.6
무급가족종사자	-45	-50	-96	-14	9	-29	-34	-3.3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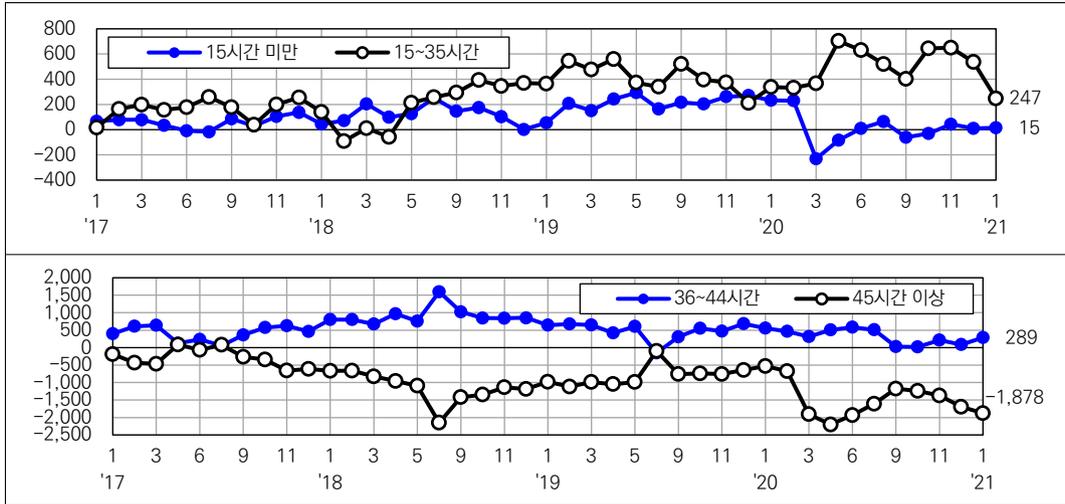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농림어업	-4	1	-9	0	-2	-2	-6	9	0	19	-4	-2	-13	18	-29
제조업	-32	4	67	15	6	2	-5	-12	-2	-2	2	-6	10	-2	5
건설업	3	-9	-9	7	-3	0	20	-44	-39	7	0	0	4	2	3
도소매	20	-25	22	28	6	-37	-17	-2	-14	-1	-7	2	-9	5	6
운수창고	1	-2	-10	-9	16	-3	-2	-1	6	0	3	2	8	-12	6
음식숙박	2	-45	-9	11	-50	-4	26	-28	-15	28	-22	-12	3	4	-6
정보통신	14	9	-1	11	1	0	-4	2	-4	-1	1	1	-5	3	-7
금융보험	0	-2	17	-8	0	15	0	0	-1	2	0	4	-2	13	3
부동산	-8	2	5	6	-2	9	4	1	3	-1	0	-3	-4	6	-5
전문과학기술	8	14	-8	-7	8	-2	5	-1	-4	-3	0	-1	-6	2	-11
사업관리지원	-6	-20	5	18	9	-17	0	-26	8	3	3	-4	-4	0	0
공공행정	23	-1	23	7	-69	-87	-2	9	-8	0	0	0	0	0	0
교육서비스	-14	19	-6	19	-5	21	2	3	1	3	1	1	-9	-5	2
보건복지	1	27	-29	3	-84	-92	3	-8	2	-2	-4	2	4	0	-3
예술스포츠	2	3	-5	-6	-13	1	-7	-7	5	2	1	0	-2	-10	-3
협회단체	-2	-4	-14	14	-11	-8	-4	-18	-1	0	4	-7	-10	-9	-3
가구 내 고용	-2	0	0	-10	6	-2	1	1	1	0	-1	0	1	6	-3

○ 2021년 1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8시간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5.9%포인트 감소함. 15~35시간(1.5%포인트)과 36~44시간(2.7%포인트) 취업자 비중은 증가함. 일시휴직자 비중은 1.5%포인트 증가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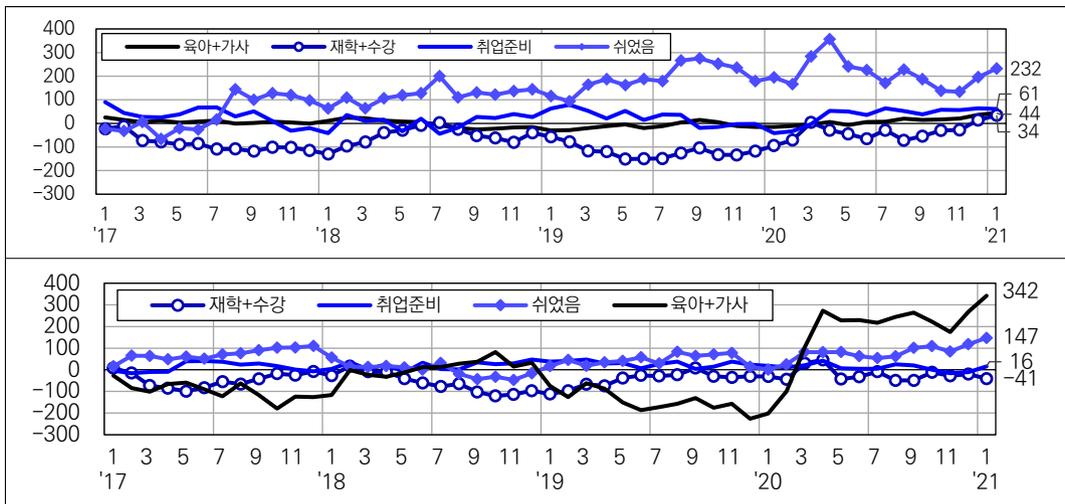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로 육아·가사(여성) 및 쉬었음(남성)에서 증가함.

[그림 6] 성별(남자: 위, 여자: 아래)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고용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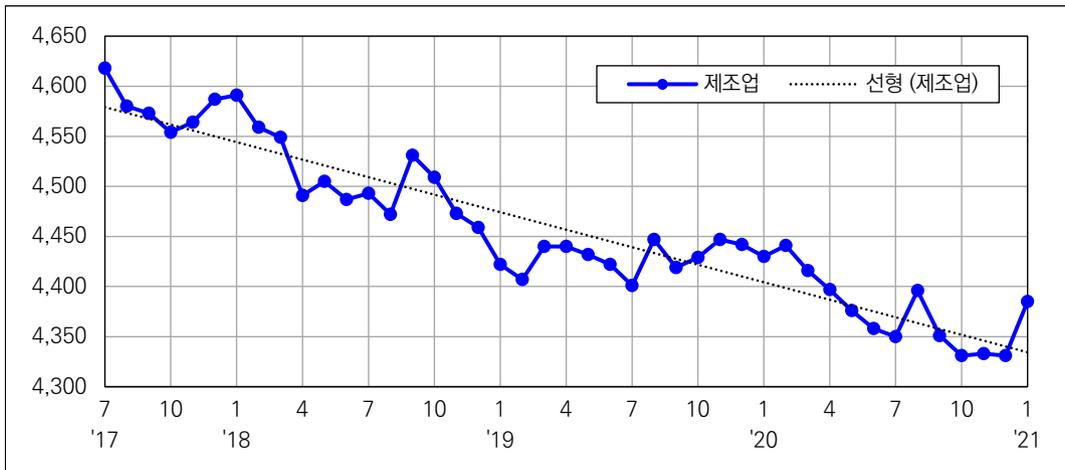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1년 1월 제조업 고용은 추세보다 증가함.

- 경찰, 고용보험 피보험자, 경기지수 모두 전월보다 증가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을 보면, 제조업 중 전자통신, 식료품 등에서 고용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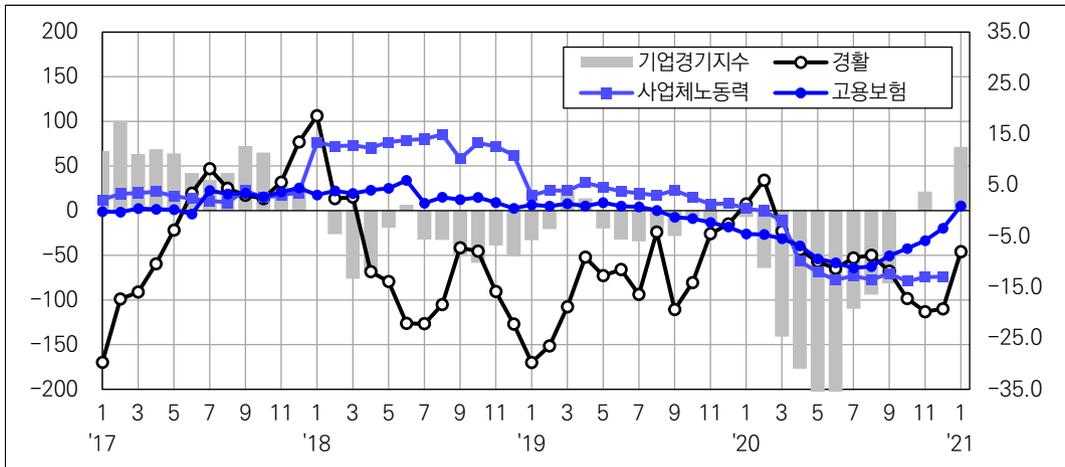
[그림 7]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그림 8]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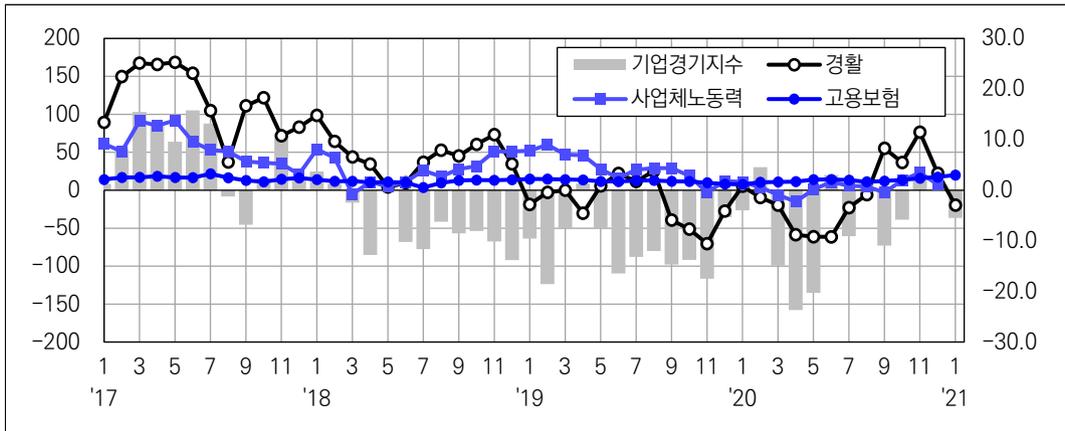


○ 건설업 고용은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를 유지함.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는 크게 증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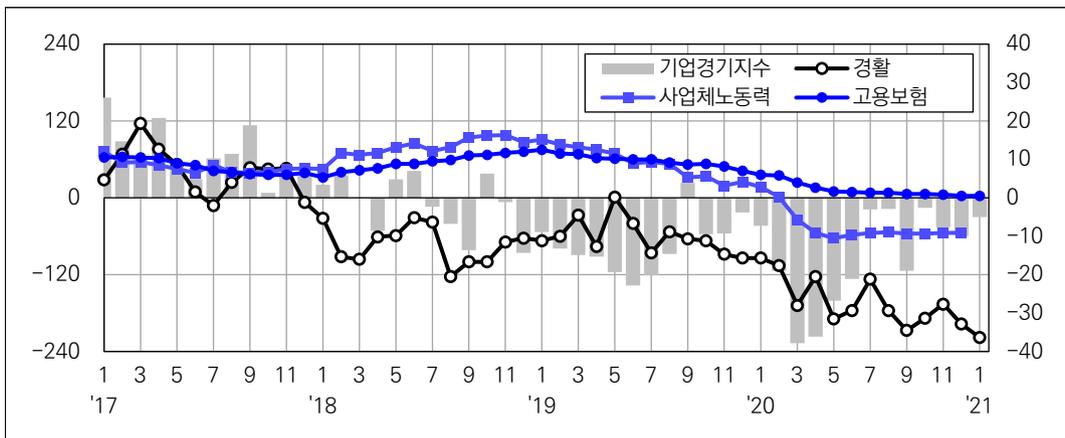


○ 2021년 1월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생활밀접 업종과 공공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감소함.

- (도·소매업) 20대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2만 1천 명 감소함.
- (숙박음식점업) 40~50대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5만 4천 명 감소함.
- (공공행정) 공공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며 취업자가 감소가 지속됨.
- (보건사회복지) 20~30대와 7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13만 2천 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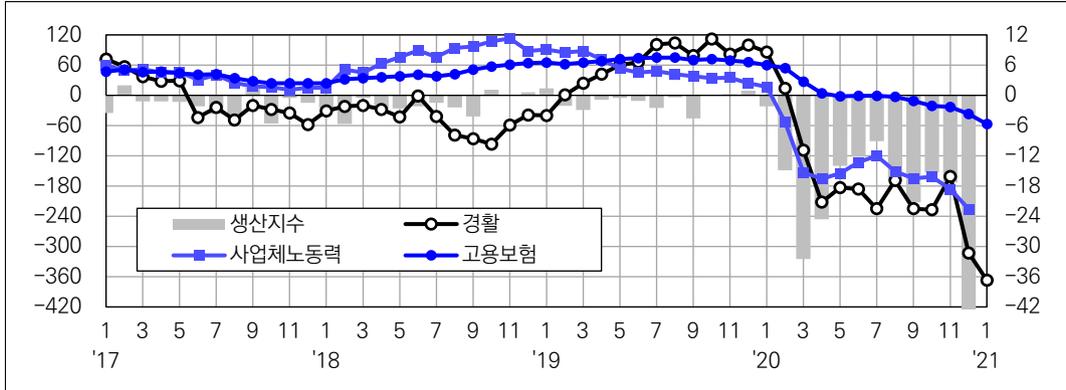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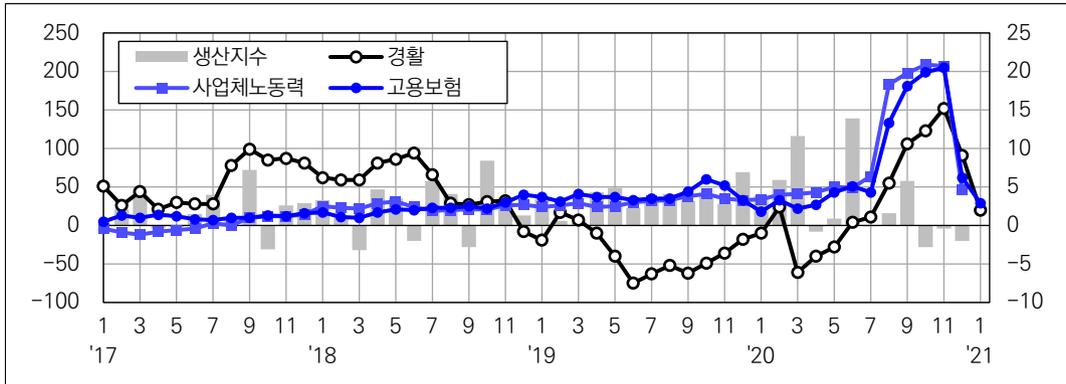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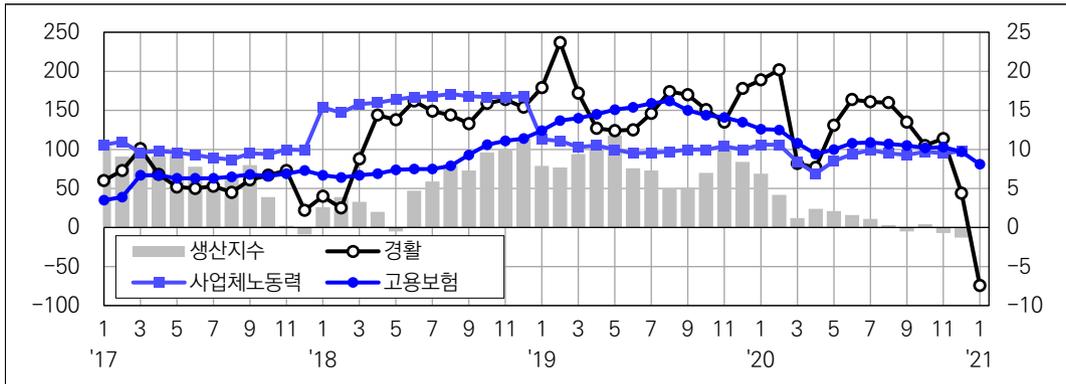
[그림 12]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가율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그림 13] 보건업, 사회복지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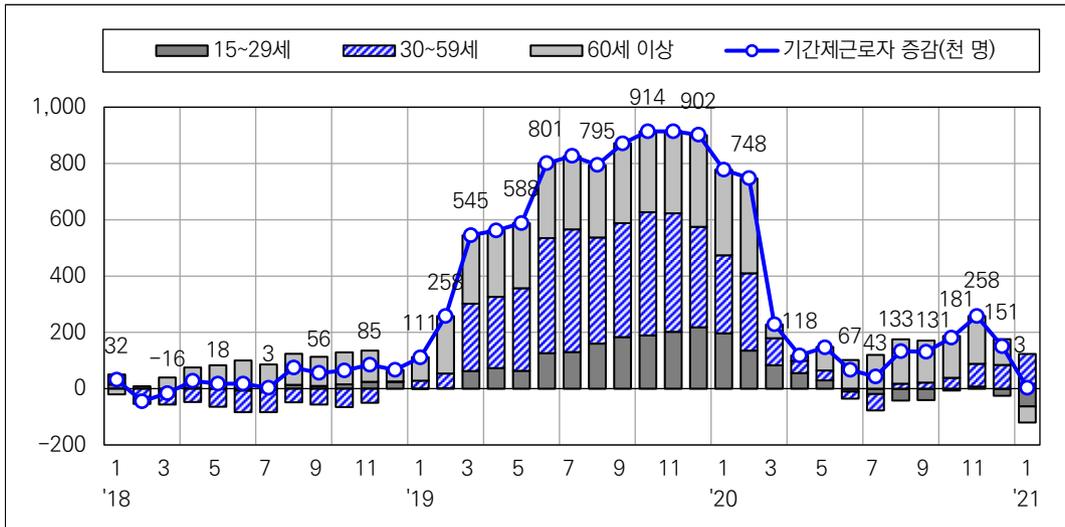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2021년 1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0년 1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2020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9만 8천 원(2.4%↑)임.
 - 2020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7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66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정액급여 증가율의 둔화와 특별급여의 감소폭 확대에 기인함.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비상용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임금총액이 증가(7.1%)함.
- 2020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8% 상승에 그쳐 실질임금상승률은 둔화함.

〈표 1〉 임금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7	2018	2019	2019		2020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454 (3.5)	3,220 (3.8)	3,484 (0.9)	3,298 (2.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662 (3.2)	3,400 (3.3)	3,670 (0.0)	3,477 (2.3)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2,996 (4.1)	2,982 (3.6)	3,062 (2.2)	3,060 (2.6)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2 (2.8)	203 (2.3)	199 (-1.2)	209 (3.0)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64 (-2.0)	215 (-1.0)	409 (-11.9)	208 (-3.2)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512 (6.2)	1,552 (6.3)	1,629 (7.8)	1,662 (7.1)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4.9 (0.3)	104.9 (0.2)	105.5 (0.5)	105.5 (0.6)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3.2	3.6	0.3	1.8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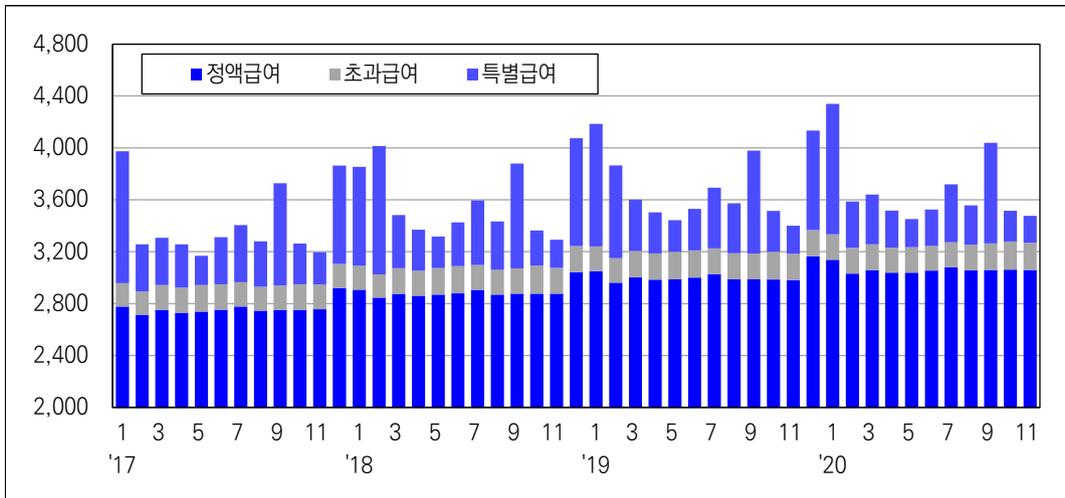
- 1~11월 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0.3% 증가함.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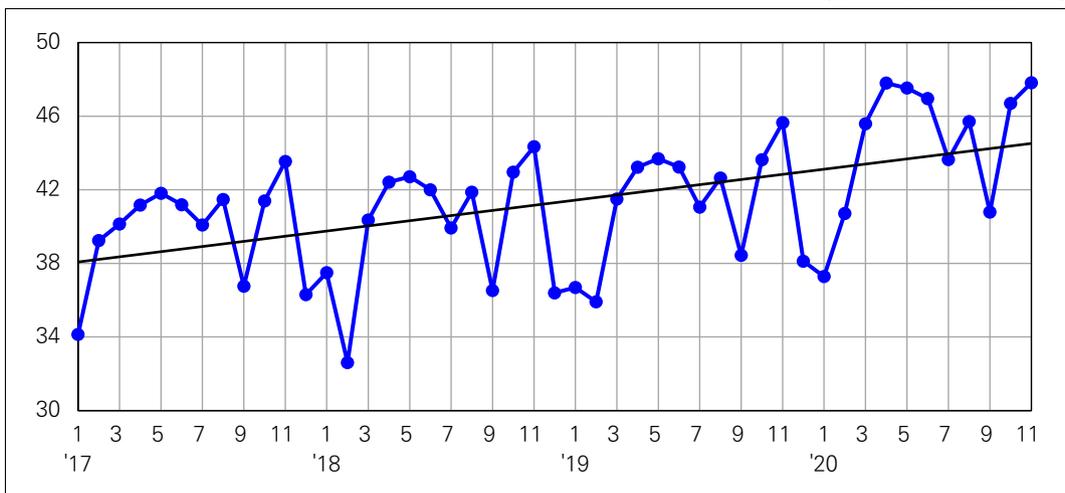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 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2.5%, 1.4% 상승 (1~11월 평균 임금상승률은 각각 1.6%, -2.7%)

○ 2020년 1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각각 304만 5천 원, 458만 9천 원임.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1.1% 상승 전환함(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11월 평균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3.4% 감소함).
- 중소기업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6.6%,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15.5% 상승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낮은 임금상승률은 교육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에서 임금이 감소한 데 기인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8	2019	2019		2020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 (4.6)	3,139 (4.0)	3,109 (4.0)	2,972 (3.7)	3,160 (1.6)	3,045 (2.5)
	상용임금총액	3,217(11.5)	3,338(3.7)	3,304(3.8)	3,148(3.3)	3,340(1.1)	3,222(2.3)
	정액급여	2,723(4.7)	2,841(4.3)	2,830(4.3)	2,823(3.9)	2,903(2.6)	2,908(3.0)
	초과급여	172(4.8)	175(2.0)	175(2.1)	175(1.8)	170(-2.8)	178(1.8)
	특별급여	322(1.9)	322(-0.2)	300(-0.2)	150(-4.3)	267(-11.1)	136(-9.5)
	비상용임금총액	1,422(5.3)	1,505(5.8)	1,500(5.9)	1,545(5.3)	1,609(7.3)	1,648(6.6)
대규모	소 계	5,305(6.5)	5,356(1.0)	5,288(1.4)	4,527(3.7)	5,146(-2.7)	4,589(1.4)
	상용임금총액	5,474(6.4)	5,492(0.3)	5,423(0.9)	4,621(2.2)	5,236(-3.4)	4,673(1.1)
	정액급여	3,735(3.8)	3,843(2.9)	3,816(2.9)	3,755(2.1)	3,814(0.0)	3,775(0.5)
	초과급여	324(0.0)	335(3.5)	336(3.7)	335(2.6)	340(1.2)	350(4.5)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271(-5.5)	531(2.4)	1,083(-14.8)	548(3.1)
	비상용임금총액	1,509(7.8)	1,712(13.4)	1,697(12.4)	1,676(22.8)	2,015(18.8)	1,936(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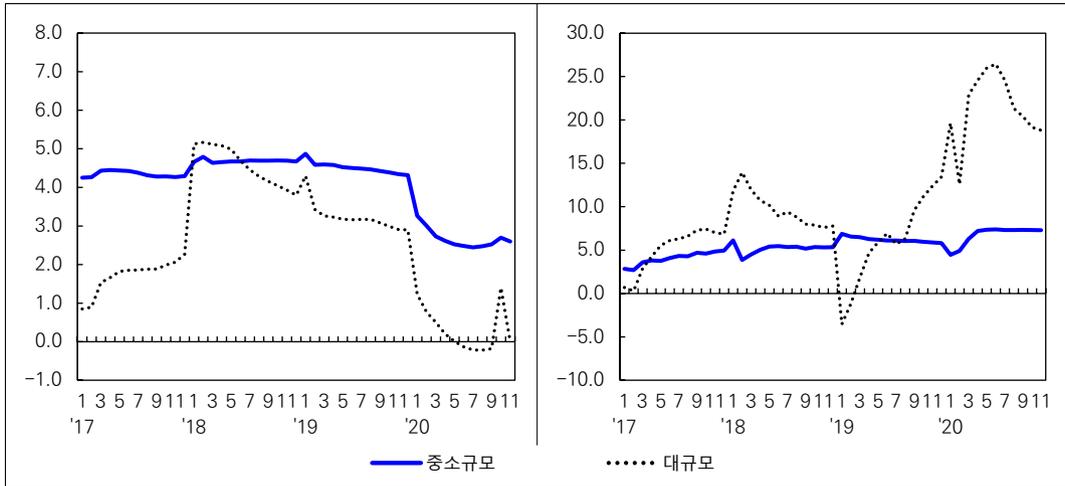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1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적음.

- 2020년 11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0만 8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14만 7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42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11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 5천 원)이며,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36만 4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47만 3천 원) 순으로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2020년=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19		2020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3,376(5.3)	3,490(3.4)	3,454(3.5)	3,220(3.8)	3,484	3,298
광업	3,835(3.3)	3,977(3.7)	3,970(3.7)	3,938(3.3)	4,309	4,336
제조업	3,930(6.5)	4,017(2.2)	3,971(2.8)	3,562(3.4)	3,924	3,68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2.5)	6,502(1.0)	6,247(1.8)	5,033(-3.0)	6,495	5,14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6.5)	3,506(6.6)	3,447(7.0)	3,327(6.6)	3,797	3,716
건설업	2,784(6.1)	2,951(6.0)	2,935(6.2)	2,870(5.2)	3,020	2,925
도매 및 소매업	3,214(5.4)	3,372(4.9)	3,326(4.7)	3,153(4.6)	3,379	3,237
운수 및 창고업	3,357(6.4)	3,476(3.5)	3,430(3.5)	3,122(3.8)	3,478	3,252
숙박 및 음식점업	1,757(8.1)	1,875(6.7)	1,877(7.0)	1,858(6.7)	1,880	1,865
정보통신업	4,277(3.8)	4,463(4.3)	4,434(4.1)	4,303(3.8)	4,581	4,332
금융 및 보험업	6,026(5.6)	6,236(3.5)	6,141(3.5)	5,527(2.8)	6,373	5,608
부동산업	2,600(6.3)	2,755(6.0)	2,738(6.0)	2,671(7.1)	2,824	2,68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5.9)	4,901(3.0)	4,802(2.9)	4,414(2.9)	4,768	4,42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5.5)	2,332(5.9)	2,319(5.8)	2,251(5.8)	2,393	2,364
교육서비스업	3,397(2.5)	3,474(2.3)	3,477(2.2)	3,170(2.4)	3,371	3,08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4.8)	2,960(5.8)	2,946(5.8)	2,884(5.2)	2,931	2,876
여가관련 서비스업	2,684(6.8)	2,819(5.0)	2,773(5.1)	2,692(3.7)	2,837	2,71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7.2)	2,517(4.8)	2,494(5.2)	2,380(5.6)	2,546	2,473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는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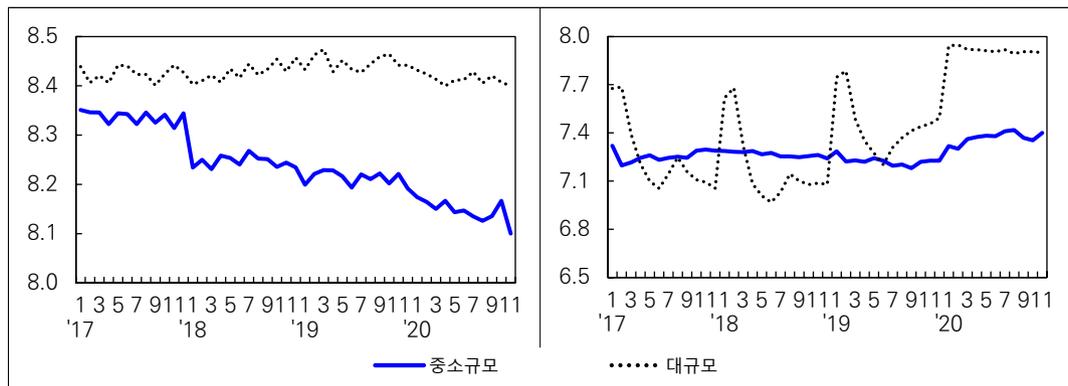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2.8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3.6시간 감소(월력근로일수는 20.0일로 전년동월대비 0.4일 감소)

- 근로시간 증감은 월력상 근로일수에 영향을 받는 편으로 2020년 11월 근로시간 감소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0.4일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2020년 1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시간/일)



주: 일일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19		2020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 (-1.5)	163.0 (-0.7)	162.8 (-0.9)	166.1 (-4.2)	159.5 (-2.0)	162.2 (-2.3)
	상용 총근로시간	172.1 (-1.3)	171.2 (-0.5)	171.0 (-0.8)	174.7 (-4.3)	166.9 (-2.4)	170.4 (-2.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 (-1.0)	162.6 (-0.2)	162.3 (-0.6)	166.2 (-4.2)	159.2 (-1.9)	162.3 (-2.3)
	상용 초과근로시간	9.1 (-6.2)	8.6 (-5.5)	8.6 (-5.5)	8.5 (-5.6)	7.7 (-10.5)	8.1 (-4.7)
	비상용 근로시간	99.2 (-6.1)	95.4 (-3.8)	95.4 (-4.1)	96.6 (-4.1)	95.8 (0.4)	97.2 (0.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 (-0.7)	164.1 (0.5)	164.0 (0.2)	167.8 (-3.2)	162.4 (-1.0)	165.9 (-1.1)
	상용 총근로시간	166.6 (-0.7)	166.3 (-0.2)	166.3 (-0.4)	169.5 (-4.7)	163.4 (-1.7)	167.2 (-1.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 (-0.3)	154.9 (0.0)	154.9 (-0.2)	158.5 (-4.8)	152.5 (-1.5)	156.1 (-1.5)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 (-4.9)	11.4 (-2.6)	11.4 (-2.6)	11.0 (-3.5)	10.9 (-4.4)	11.1 (0.9)
	비상용 근로시간	89.2 (-1.2)	104.9 (17.6)	104.4 (16.0)	115.0 (35.6)	125.0 (19.7)	125.5 (9.1)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86.8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6.5시간)

- 2020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178.1시간), 제조업(178.0시간) 순으로 나타남.
- － 1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40.2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51.8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50.9시간) 등으로 전 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10시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2020년=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시간, %)

	2018	2019	2019		2020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3.0(-0.7)	166.4(-4.0)	160.0	162.8
광업	176.6(0.5)	175.7(-0.5)	175.3(-0.7)	179.3(-4.5)	180.0	186.8
제조업	177.1(-1.5)	175.9(-0.7)	175.7(-1.0)	180.5(-4.1)	171.9	178.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0.6(-0.9)	173.6(-1.8)	163.0	166.7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8.3(0.2)	181.5(-2.5)	175.8	178.1
건설업	138.5(-2.4)	136.3(-1.6)	136.1(-1.9)	138.2(-5.2)	136.6	136.5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5.3(-0.1)	169.5(-3.3)	163.2	165.2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64.1(-1.6)	165.8(-4.5)	158.6	160.4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58.8(-0.6)	161.5(-1.7)	149.9	150.9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1.1)	167.2(-4.2)	163.2	166.3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1.4(0.1)	164.0(-4.4)	161.5	162.5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6.2(-1.6)	178.6(-3.9)	172.6	173.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2(0.2)	166.1(-4.4)	161.3	163.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2.4(-0.6)	165.3(-3.6)	161.1	162.8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42.2(-0.4)	143.4(-4.5)	136.2	140.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61.9(-0.5)	165.2(-4.0)	157.9	160.6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56.1(-1.1)	160.1(-3.0)	149.9	151.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59.8(-1.4)	161.9(-4.5)	159.6	161.3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은 20건
 -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동월 건수(9건)보다 11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1월 조정성립률 50%
 - 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동월 성립률 80%에 비해 30%포인트 높아진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1.	20	16	7	5	2	7	1	6	0	2	4	50.0%
2020. 1.	9	6	4	1	3	1	0	1	0	1	3	8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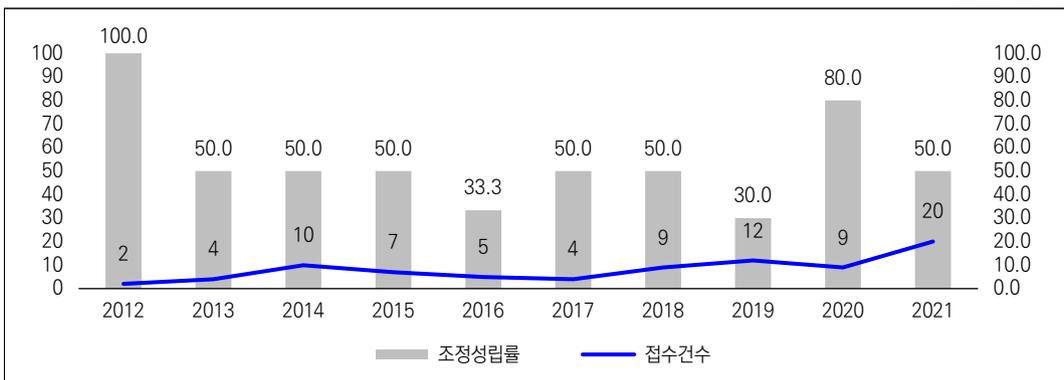
<표 2> 2012~21년 1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1.	2013. 1.	2014. 1.	2015. 1.	2016. 1.	2017. 1.	2018. 1.	2019. 1.	2020. 1.	2021. 1.
접수건수	2	4	10	7	5	4	9	12	9	20
조정성립률	100.0	50.0	50.0	50.0	33.3	50.0	50.0	30.0	80.0	5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12월 접수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은 714건
 -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664건)보다 50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4.8%(28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2%(85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	714	113	24	4	46	9	20	10	600
2020. 1.	664	197	38	4	83	14	36	22	44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1건
 - 1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건수는 전년동월(17건)보다 4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41.7%(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8.3%(7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	21	12	5	0	4	3	0	0	9
2020. 1.	17	10	4	0	3	2	1	0	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협약 잠정합의

- 연대회의, 예고했던 전국 교육복지사 총파업도 철회
 - 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시·도교육청은 임금협약에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연대회의는 이날 예고됐던 2,000명 규모 전국 교육복지사 총파업을 철회하였음.
-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1만 7,000원 인상(1유형 204만 원, 2유형 184만 원)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120만 원) ▲맞춤형 복지비 5만 원 인상(55만 원) ▲급식비 1만 원 인상(월 14만 원) 등임.
- 교육공무직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사·사서 등 1유형과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2유형으로 나눔. 이 외에 교육복지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운동부지도자 등 90여 개 직종은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됨.
- 잠정합의안이 가결돼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기본급, 맞춤형 복지비는 2021년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급식비는 협약 체결 월, 명절 휴가비는 협약 체결일 이후부터 협약 내용이 적용됨.

◆ 현대중 노사,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

- 해고자 4명을 제외한 징계자에 대해 성과금, 연월차 감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 2월 3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 2020년 임금과 단체협약안에 잠정합의 했음.
 - 2019년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 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10%+15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20년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 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 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을 담았음.
 - 2019, 2020년에 한해 정년퇴직자에 대해 임금소급분, 성과금, 격려금을 지급하고, 물량 부족에 따른 휴직·휴업자에 대해 2019년 성과금의 해당 기간 감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을 벌인 이후 해고자, 파업 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음.
 -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쌍방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총 1,415명)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았고 회사는 해고자 4명을 제외한 징계자에 대해 성과금, 연월차 감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 회사는 해고자 4명 중 3명은 재입사시키기로 하였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음.

◆ 2020년 산재 사망 882건

- 전년 대비 27명 늘어

- 1월 21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자 잠정집계에 따르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27명 증가함.
-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에 이어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
- 이 중 38명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이 5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3%로 기록됐음.
- 노동부는 2022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해 미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천 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할 계획임.

◆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85%가 우울증 위험군

○ 근골격계질환 관리 대상 비율도 제조사업장의 두 배

- 2월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날 발표된 노동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85%가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함. 2019년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우울증 위험군 비율(4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
- 감정노동 수치는 5개 요인에서 모두 위험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고객 응대 과부하 및 갈등 영역에서 약 94%의 건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가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근골격계질환 관리 대상 비율 역시 약 80%에 달해 제조사업장의 42.7%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공공운수노조는 추가적으로 건보 고객센터 외에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6개 공공기관 콜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에 산재보험료 전국 첫 지원

○ 3월부터 배달원 등 2,000명 대상, 1년간 보험료 90% 지급

- 1월 14일 경기도는 3월부터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는 3개월마다 사업주 또는 노동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음.
-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함.
 -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현재 넓은 의미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는 1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함.
 - 배달 기사처럼 업무 배정부터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는 22만 명으로, 대부분이 20~30대임.
 - 플랫폼 노동자는 음식배달, 기사서비스, 대리운전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임.

◆ 정부,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불공정 관행·계약 사전 차단 위해 올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 1월 18일 정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내용을 발표했다.
 -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했음.
 - 특별제보기간 동안 총 75건의 사례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를 통해 접수되었음.
 - 정부는 75건에 대해 분류한 결과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임.
 - 정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과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적극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 비정규직 10명 중 4명 “1년간 실직 경험”

-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1월 17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20년 12월 말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 전체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실직 경험률은 17.2%로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컸음. 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은 4.2%인 반면 비정규직은 36.8%에 달했음.
 - 2020년 4·6·9·12월 4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은 3.5%, 4.0%, 4.3%, 4.2%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은 8.5%, 26.3%, 31.3%, 36.8%로 급증했음.

- 실직 경험은 사무직(7.0%)과 비사무직(27.4%), 300인 이상 사업장(11.0%)과 5인 미만(24.2%), 월 임금 500만 원 이상(9.5%)과 150만 원 미만(42.2%) 간에도 큰 격차를 보였음.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 비자발적 해고(27.9%), 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음.
- 1년 사이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응답도 고용 조건이 열악할수록 높게 나타났음. 비정규직(44.8%), 비사무직(38.8%), 5인 미만(36.4%), 150만 원 미만(53.1%), 여성(32.0%)에서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답변이 많았음.
- 실직과 노동시간 감소로 직장인 32.6%는 소득이 줄었는데, 응답률은 비정규직(55.3%)이 정규직(17.5%)보다 3배나 높았음.
- 실직을 경험한 사람 중 77.3%는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혔음. 이 응답은 150만 원 미만(92.6%), 5인 미만(87.5%),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86.7%), 일용직(85.2%) 등에서 높았음.

◆ 방송노동자 10명 중 3명 “주 6일 이상 근무”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스태프 245명 실태조사

- 1월 20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방송노동자들의 현장 환경 및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는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245명의 답변 중 유의미한 218개를 분석, 이 중 15명은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음.
- 답변자의 35.4%가 주 6~7일 근무했음. 촬영 현장의 유동성 때문에 근무시간은 수시로 조정됐음. 근무시간이 바뀌면 당일 통보받는다곤 한 이들이 60명(27.5%)이었고 ‘하루 전’ 62명(28%), ‘며칠 전’ 72명(33%)이었음.
- 퇴근한 후부터 다음 날 출근하기까지 시간이 11시간이 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161명(63.9%)으로 절반이 넘었음.
-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6명(62.4%)이었음.

◆ 사회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전망 ‘부정적’

○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

- 1월 24일 직장갑질119는 2020년 12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을 물었던 조사 결과를 공개했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5%)은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나이가 적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음. 20대(53.4%)와 30대(47.4%)

- 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음. 40대(62.7%) · 50대(74.4%)는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공공기관 직장인은 응답자의 과반수(68.5%)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음. 반면 5명 미만 민간기업은 응답자의 51.5%가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5~30명 미만 기업 직장인은 52.5%, 30~300명 미만 기업은 60.4%, 300명 이상 기업은 65.7%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전망에 대한 부정 응답률이 높았음.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는 응답자의 66.7%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반면 상용직 노동자의 61%는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음.

◆ 직장갑질119 "성희롱 37%만 신고

○ 가해자 89% 우월한 지위 악용

- 1월 31일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부터 3년여에 걸쳐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제보 가운데 제보자 신원과 상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된 사례 364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피해 사례 중 성희롱 문제를 제기·신고한 경우는 37.4%(136건)에 불과했음. 가해자는 대체로 피해자보다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우위(89%·324건)에 있었음.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례(29.4%·107건)도 빈번했음.
- 조사 대상 피해자 중 68.7%(250명)는 다른 형태의 괴롭힘도 함께 경험했음. 52.9%가 따돌림·소문·배제·인사발령·해고 등 '적극적' 불이익을 겪었고, 37.5%는 무시·신고 미처리 등 '소극적' 불이익을 마주했음. 문제 제기·신고 사례의 90.4%가 보복으로 이어진 것임.
-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83.2%)이었으며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경우도 22%에 달했음.
- 직장갑질119는 ▲직장의 민주화와 고용 형태 간 차별 해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해석·집행 ▲성희롱 행위자·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용자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음.

◆ 20대 코로나 블루, 고졸·4년제보다 전문대가 더 심각

○ 경사노위 청년위원회, 20대 청년 596명 조사

- 2월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는 2일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 결과에서 만 29살(1991년 이후 출생) 청년 59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실업 영향에

- 따른 우울증상 척도(CES-D)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23.2점으로 전문가 상담 권고 기준(16점)을 웃도는 수준이었음.
- 청년들의 우울감은 구직 자신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 2·3년제 전문대 재학·졸업자(25.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경인지역 4년제 대학 재학·졸업자(24.6), 고졸자(23.9) 등의 차례였음.
 - 이번 조사에서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출신의 우울증상 지수가 22.9점으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출신과 큰 차이가 없었음. 구직 자신감을 묻는 응답에서도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긍정적인 응답(매우 자신 있음, 자신 있음) 비중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37.6%, 35.6%로 나와 수도권(31.3%) 청년들보다 높았음.
 - 이외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1%)인 323명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전체의 39.6%(236명)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구직활동 중이라고 했음.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주당 평균 17.9시간을 일해서 한 달 평균 69만 9천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음.

◆ 코로나19 실직한 청년 알바 10명 중 9명 실업급여 못 받아

- 2월 9일 서울청년유니온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한 만 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2명) 중 9.8%(10명)만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음.
- 나머지 90.2%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음.
-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만 19~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됐음.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고용보험 미가입(40명, 39.2%) ▲180일의 최소 노동 일수에 미치지 못함(30명, 29.4%) ▲자발적 퇴사(15명, 1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기타 이유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건 있었음.
- 서울청년유니온은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7명에 대한 집단 인터뷰도 진행했음. 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7명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을 지원한 바 있음.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시간제, 일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청년(만 19~34세)으로, 신청 기간 9일 동안 총 1,155 명이 신청해 서울시는 892명에게 총 8억 8,750만 원을 지급했음.

〈표 5〉 실직 이유별 실업급여 수령 여부

			전 체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전 체		빈도	102	10	92
		비율	100.0%	9.8%	90.2%
실직	비자발적 해고	빈도	44	6	38
		비율	100.0%	13.6%	86.4%
사유	권고사직	빈도	25	2	23
		비율	100.0%	8.0%	92.0%
	자발적 퇴사	빈도	23	1	22
		비율	100.0%	4.3%	95.7%
	계약기간 만료	빈도	6	1	5
		비율	100.0%	16.7%	83.3%
	기타	빈도	4	0	4
		비율	100.0%	0.0%	100.0%

자료 : 청년유니온.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